

한 初代敎人の 近代化 意識과 韓末 政治觀

—尹致昊日記를 中心으로—

韓 培 浩*

I. 序 論

韓國에서 改新敎가 宣敎 活動을 始作한 1885年은 우리 歷史에 있어서 對內外的으로 一連의 急激한 變化가 밀려 닦혔던 激動期에 該當한다. 對外的으로 日本과의 江華條約(1875), 美國과의 韓美 修好 通商 條約(1882)이 締結됨으로써 五百年間의 閉鎖 狀態에 終止符를 찍게되고 언달아 獨逸·로스와·프랑스와 修交를 맺은 바 있다. 對內的으로도 大院君 執權 10年 동안의 內政改革과 鎖國 政策이 實効를 견우지 못한 채 閔氏 政權에 依해 代置되었으나 累積된 政治, 經濟의 衰退가 惡化 一路를 치닫고 있었다. 極甚해진 政治 社會的 不安과 混亂 속에서 壬午軍亂(1882)이 發生하면서 短命의 大院君 再執權 企圖가 있었으나 淸의 介入으로 挫折되었고 二年後에 甲申政變(1884)이라는 또 하나의 政變이 일어났으나 역시 失敗로 돌아 갔으며 結果的으로 閔氏 一派의 保守 勢力의 補強을 招來한 바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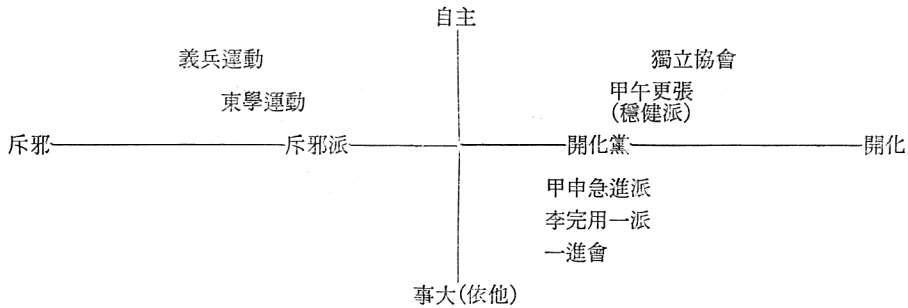
歷史的으로 하나의 重要的 轉換期였다고 할 이 時點에서 當面한 對內外的 危機에 對處해서 그 危機를 克服하려는 集團의인 움직임은 多樣하게 나타났다. 보는 觀點에 따라 保守—進歩主義라는 區分이 使用될 수도 있고 對外 依存主義와 主體主義라는 兩分論도 사용될 수 있으며 民族主義 對 植民主義라는 對比도 活用될 수 있겠다.

韓末 當時의 政治·社會 勢力의 이데오로기 定向을 어떻게 類型化하던 간에 그 當時의 政治 에리트 間에 있어서 危機 克服을 위한 目標 設定과 達成 手段을 놓고 深刻한 對立이 造成 되었으며 多樣한 政治 勢力 間의 對立 樣相을 ‘斥邪—開化’라는 軸과 ‘自主—事大(依他)’라는 또 다른 軸을 交叉시켜 다음과 같은 패턴으로 整理해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러한 政治 勢力間의 對立 樣相은 自律的이기 보다는 他律的 要因에 依해 左右되는 바가 컸다. 이미 오랜 時日을 두고 持續되어 온 淸·朝鮮의 ‘特殊關係’도 한 決定 要因으로 作用으나

* 高麗大學校 敎授 政治學.

1) 韓培浩, 『開港期 以後의 政體와 政治文化: 세계의 理念型』韓國 政治學會報, 第十輯, pp. 23—39. 參照.



開港後 韓半島에 介入해 온 日本과 西歐 諸國 間의 複雜한 利害 關係가 國內 政治 勢力과 密接히 結託됨으로써 韓末 政治 情勢는 混亂과 不安定으로 點綴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歷史的 狀況 속에서 導入된 改新敎의 宣敎는 潛在的으로나 實際的으로 開化 近代化 思想과 國權 守護를 目標로 하는 民族主義와 密接하게 結付될 수 있는 素地를 안고 있었다.

改新敎와 近代化 思想 그리고 民族主義的 志向을 그 나름대로 結合해서 그 것으로 韓末의 危機를 克服하기 위한 解決策으로 삼으려는 價値 定向을 實踐해 보려던 사람이 佐翁 尹致昊(1864—1945)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런 意味에서 佐翁의 思想이나 政治的 立場은 韓末 當時의 既存 政治 勢力의 어느 것과도 다른 特異한 것이었고 따라서 그의 立場은 외로운 것일 수 밖에 없었다. 오랜 期間을 두고 儒敎的 傳統에 젖어온 韓國 社會에서 기독교를 통해서 社會를 開化, 近代化 시키면서 外勢의 威脅으로 부터 國權을 지켜야 한다는 思考와 立場이 韓末 當時로 볼 때 얼마나 生疎하고도 ‘터무니 없는’ 主張이었을까 가이 짐작할만 하다. 그러나 佐翁의 思想的 定向이 具體的으로 發現된 것이 훨씬 뒤의 日帝下 敎會 中心의 近代化 運動과 反日的 民族主義였다고 한다면 佐翁의 先覺者의 役割은 決코 過少 評價할 수 없는 일이다.

이 論文의 目的은 비록 體系化된 思想으로 定立되지 못했지만 佐翁이 가졌던 基督教과 近代化 그리고 民族主義 사이의 關聯性에 對한 ‘意識’, 또는 佐翁의 價値 定向 속에서 이 세가지 要素가 어떠한 關聯性을 지니고 있었는가를 究明하려는 데 있다. 韓末 當時 極少數에 不過했던 改新敎 初代 敎人의 한사람으로서, 美國에서 神學을 工夫한 知性人으로서, 舊 韓國 政府의 高級官僚로서, 그리고 甲午更張 以後 獨立協會 會長, 獨立新聞 社長으로 開化 運動을 領導했던 民權指導者로서의 佐翁이 느끼고 생각하며 實踐하려던 것이 기독교 近代化 그리고 民族主義와 直接的으로나 間接的으로 깊은 關聯을 맺은 것들이었다는 점에서 그를 하나의 事例로 삼아 考察하고자 한다.

Ⅱ. 佐翁의 私的 背景과 韓末의 歷史的 狀況

佐翁은 1864年 12月 26日에 忠南 牙山郡 信川에서 尹應烈의 長子로 태어 났다. 아홉살이 되

던 해에 一家가 서울로 移舍하였다. 佐翁은 어릴적 부터 科學를 目標로 漢學을 工夫하였고 14歲(1879)에 隣近의 姜氏와 早婚을 하였으나 姜氏는 1886년에 死亡했다. 尹致昊 日記 속에서 佐翁은 姜氏에 對해 別로 言及이 없고 오직 그녀의 死亡만을 記述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佐翁의 初婚이 그리 圓滿했던 것 같지는 않다.

1880년에 金弘集이 修信使로 渡日했을 때 尹應烈이 그를 隨行하였고 歸國後 尹致昊를 紳士 遊覽團의 隨行員으로 渡日하도록 알선하였다. 1881年 5月 佐翁은 16歲의 나이로 魚允中의 隨行員으로 渡日했으며 紳士 遊覽團이 歸國할 때 日本에 殘留하여 留學의 기회를 얻게 되었다. 佐翁은 日本 外相 井上의 알선으로 中村正直이 경영하던 同人舍에 入學하였다. 후에 金玉均의 권유로 英語를 공부하였다.

1883年 4월에 美國의 初代 駐韓 公使 Foote 將軍이 韓國에 赴任하는 途中 日本에 들렀을 때 井上 外相에게 韓國人 通譯 한사람을 求해 줄 것을 부탁하자 井上은 尹致昊를 Foote에게 薦거 하였다. 그러한 契機로 해서 佐翁은 Foote 氏를 따라 1883年 7월에 歸國하였으나 그後 Foote의 信賴를 받는 속에서 美國 公使館과 韓國 政府 사이에서 橋梁的 役割을 맡았고 자주 王室에 드나드는 機會도 가졌다. 佐翁은 當時의 開化黨 人士들의 총애를 받기도 했으며 獨立黨 主導 人物들의 甲申政變 謀議 場所에도 한번 參席한 바 있다.²⁾ 金玉均과 Foote 公使 사이의 會晤를 주선한 적도 있었고 甲申政變이 일어났을 때 郵政局의 만찬회에도 Foote 公使와 함께 參席하였다.

이러한 獨立黨과의 紐帶 關係로 甲申政變이 失敗로 끝나자 그의 父親 尹應烈은 시골로 避身했고 佐翁도 身邊의 위협을 받게 되었다. 한달 후 Foote 公使가 辭任하면서 1886年 1月 佐翁을 데리고 日本 나가사키로 向했다. 日本에 到着한 佐翁은 洋服을 사입은 후 상투를 잘랐다. 그리고 Foote의 紹介狀을 갖고 上海로 直行하였다. 그리하여 1895年 2월에 歸國하기 까지 약 10年 間의 海外 亡命 生活의 길에 올랐다. 이 때 그의 나이 20歲였다.

上海에 到着한 佐翁은 中西學院(Anglo-Chinese College)에 入學하여 本格的으로 西歐式 敎育을 받기 시작했다. 특히 同學院 在學中 1887年 3월에 基督教로 改信하였다. 다음 해에 中西學院을 卒業한 佐翁은 本國의 狀況이 계속 自身에게 不利한 점을 인식하고 歸國을 斷念한채 美國 留學의 길에 올랐다. 그리하여 Vanderbilt 大學과 Emory 大學에서 5年間(1888—1893)의 留學 生活을 보내는 동안 佐翁은 神學과 歷史 哲學등을 공부하고 1893年 11월에 다시 上海로 돌아가 中西學院에서 잠시 教鞭을 잡았으며 1894年 中國 女人 馬氏와 再婚한 후 淸日戰爭後 日本의 介入 속에서 內政 改革이 強行되던 1895年 2월에 改革 推進 勢力의 권유를 받아 歸國하게 되었다. 歸國한 佐翁은 學務協辦으로 任命되었다가 같은 해 7월에 外務協辦으로 자리를 옮겼다가 翌年 2월에 다시 學務協辦으로 任命되었으나 數個月 후에 니콜라스 II世 露皇帝 戴冠式에

2) Donald N. Clark, "Yun Chi-ho (1864—1945): Portrait of a Korean Intellectual in an Era of Transition," *Occasional Papers on Korea*, Number Four, Seattle, Washington, 1975, p. 41.

特使로 派遣된 閔泳煥의 隨行員이 되기 위해 同職을 辭任해야 했다. 戴冠式에 參席한 후 佐翁은 유럽 各地를 돌아 다니면서 外國語를 習得하다가 1897년에 歸國했으나 官職에 돌아가지 않고 徐載弼과 함께 獨立協會를 中心으로 한 開化 運動 民權 運動에 投身하였다. 그 후 獨立協會가 王命으로 強制 解體되고 關聯 人士들이 投獄되었을 때 平素 高宗으로 부터 寵愛를 받아온 佐翁은 禍를 免하고 王의 配慮로 地方의 監事로 轉轉하다가 1904년에 또 다시 中央의 官職으로 돌아가 外務協辦으로 韓日議定書와 乙巳保護條約에 署名하는 苦役을 맡게 되었다. 그의 나이 40歲 때의 일이었다.

佐翁의 生涯는 어느면 韓國 民族이 겪었던 歷史의 縮少版이기도 하다. 佐翁은 18歲 때인 1883年 부터 계속해서 日記를 通해서 그가 본 바, 느낀 바, 그리고 겪었던 體驗들을 珍貴히 記錄했다. 國史編纂會가 發刊한 『尹致昊日記』(全卷)는 1902年 까지의 日記를 收錄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全生涯의 半程度의 期間에 對해서만 資料가 整理되어 있는 셈이다. 그러나 이 期間 동안은 佐翁 個人에 있어서나 韓國 民族에게는 激變期에 該當하는 것이며 韓國 近代史에 있어서 가장 重要했던 時期였음은 再言을 不許할 것이다. 韓國 民族으로서의 밀려 닥치는 外勢의 威脅下에서 閉鎖的인 李朝 體制를 開放하고 西歐 文明의 受容을 通해서 近代的 國家로 變質해야 하는 難題를 안고 있었고 이에 失敗하면서 帝國主義 勢力의 角逐에 휩쓸린 채 國權을 喪失하는 民族 受難의 悲劇을 겪었던 期間이었다.

佐翁 個人에게 있어서도 일찍 부터 改革家로서 눈을 뜨기 시작, 그가 海外 亡命 生活 中에 基督教을 受容 入信한 知性人으로서 祖國의 未來를 내다 보면서 기독교와 近代化, 그리고 民族의 將來를 생각하던 時節이 바로 이 期間이었다. 뿐만 아니라 작은 크든, 直接的이었던 間接적이었던 間에 佐翁 生涯의 前半期는 韓末의 政治의 事態(events)와 깊은 聯關을 맺고 있었으며 佐翁 自身은 그 事態를 目擊한 證人이었다. 그過程에서 佐翁의 政治 意識과 經倫도 成熟되어 갔다.

Ⅲ. 佐翁의 信仰과 政治 意識

1. 入信 動機와 基督教觀

韓末에 兩班 家門에서 태어나 漢學을 習得하고 儒教 倫理를 崇尚하던 家庭 背景 속에서 자라난 佐翁은 典型的인 '선비' 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한 出身 背景을 지닌 佐翁이 改革主義의 인 性向을 갖게 된 契機가 무엇인지는 明確히 알 수 없으나 짐작컨대 日本 留學 時節에 받은 영향 때문이 아닌가 한다. 金玉均을 위시한 開化派 人士 사이에서 寵愛를 받으면서 저들의 思想과 立場에 끌리게 되었을 것이며 日本에서도 福澤諭吉나 同人舍의 中村正直의 影響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한 改革主義的 定向의 延長으로 나타난 것이 佐翁의 基督教로의 改信이었다고 볼 수 있다. 日本에서 英語 工夫를 시작한 것은 “英語를 배워야 日本을 經由치 않고 泰西 文明을 直輸入할 수 있다”고³⁾ 말한 金玉均의 勸告 때문이었다는 점을 보아도 開化派의 意識 속에는 西歐文明에 對한 肯定的 評價가 作用했던 것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親西歐的 定向에 追加해서 明治維新 以後 日本이 이룩한 西歐化 또는 近代化에 對한 肯定的 評價가 開化 勢力間에서 널리 共有되고 있었으며 佐翁 역시 例外는 아니었다.

그러나 親西歐的 定向이나 日本 近代化에 對한 肯定的 評價와 基督教의 受容이 直接 聯結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佐翁이 紳士遊覽團을 따라 渡日했을 때 起居한 同人舍는 中村正直라는 當時 日本에서 屈指의 基督教界 指導者에 依해 運營되고 있었던 學舍로서 佐翁은 中村의 영향을 받았을 법하나 記錄으로 보아서는 그와 같은 事實을 찾아 볼 수 없다. 中村은 士族 出身의 日本의 初代 敎人으로서 佛敎의 倫理主義에 익숙했던 士族 信徒들에게 儒敎의 準據 속에서 基督教理를 解義해 줌으로써 저들의 入信을 容易하게 해 준 漢學者였다. 中村은 1871년에『擬泰西人上書』를 執筆하고 그속에서 日本은 西洋文明을 活潑히 輸入하고있으나 其根本이 되는 基督教을 採用하지 않는 것은 마치 나무 가지만을 쫓되 나무 뿌리를 모르는 것과 같다고 論하고 日本天皇에게 洗禮를 받도록 권유하기도 한 傑物이기도 했다⁴⁾. 그러한 中村의 門下에 있었던 佐翁이지만 基督教을 受容하지 않고 있다가 美國 公使를 따라 歸國했다.

佐翁이 信者가 된 것은 23歲 때인 1887年이다. 日本 留學 後 부터 上海에서 亡命 生活을 보내기 까지에 그의 心境에 相當한 變化가 생겼을 것은 가이 짐작할 수 있으나 記錄에 비추어 볼 때 中西學院에서 가르치던 美國人 宣敎師 W.B. Bonnell 敎授의 人格的 感化가 決定的이 아니었던가 한다⁵⁾. 佐翁은 그를 가르켜 “나를 그리스도에게 引導해 준 直接的인 案内者(Immediate guide)”라고 부르고 있다⁶⁾. Bonnell 敎授는 1892年 12月에 佐翁에게 보낸 便紙에서 “나와 나의 家族의 健康 狀態로 보아 나의 宣敎地를 韓國으로 바꾸기로 作定했다”고 쓰고 있으나 그 後 그가 實際로 韓國에서 宣敎 事業을 했는지 與否는 알 수 없으나 그의 韓國에 對한 關心이 佐翁의 改信과 아주 無關한 것은 아니리라 짐작 된다.

佐翁의 入信 動機와 日本 初代 敎人들의 그것 사이에는 類似한 면도 있지만 對照的 인면도 있다. 改新敎가 日本에 傳來되었을 때 基督教을 受容한 日本 初代 敎人은 대개가 明治維新 當時 幕府側에 속했던 諸藩 出身의 舊 武士層이었다. 明治維新 政府下에서 權力에서 疎外된 저들은 洋學 修業을 통해 立身 出世의 길을 擇했으며 修學 途中에 西洋人 宣敎師의 人格的 感化를 받아 入信한 경우가 많았다. 저들의 入信에 있어서 儒敎의 倫理主義는 基督教 受容의 媒介로서의

3) 探求堂, 『尹致昊日記』 下卷에 收錄된 附錄 p. 341 參照.

4) 岩波書店, 『日本歷史』 近代 p. 371.

5) 『尹致昊日記』三, p. 6. (1893年 1月 12日 日記參照)

6) 上揭 日記文.

機能을 하기도 했다. 宇宙의 創造者로서의 唯一神의 存在는 儒教에 있어서 ‘天’의 思想과 通하는 면이 있었기 때문이다. 儒教에서 強調해 온 性·天道의 教理가 基督教 속에서 보다 活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基督教을 “보다 높고 큰 孔子의 教”로 간주하는 傾向을 띠고 있었던 것이다. 同時에 日本 初代 信徒들은 基督教가 지닌 市民社會的인 倫理性和 百科全書的인 啓蒙性을 導入하여 新日 本建設의 밑거름으로 삼아야 한다는 愛國主義的 傾向을 아울러 지니고 있었다.

佐翁의 경우 日本 初代 教人들과 같은 儒教 倫理와 基督教理의 相容性에 對한 肯定的인 定向은 찾아 볼 수 없다. 오히려 佐翁의 경우 基督教의 受容은 儒教倫理에 對한 徹底한 否定을 土臺로 하고 있다. Vanderbilt 大學 在學 時의 日記 內容에서 볼 수 있듯이 佐翁은 美國 改新教가 지닌 獨特한 中產 階級의 價値나 倫理觀에 깊이 同調하고 있으며 그러한 新教 倫理가 그의 실란한 儒教 批判의 準據點이 되고 있다. 그의 反儒教의 立場은 일찌기 開化 勢力의 影響과 그 후 日本 留學 時節에 더욱 強烈해 진 것이지만 美國 留學 時節의 日記 全體를 通해서 綿綿히 이어지고 있는 基本 定向의 하나이다. 韓國의 內政을 批判하는 句節마다 ‘儒教 亡國論’이 底邊에 깔려 있다. 韓國을 未開 狀態 後進性 그리고 不正 腐敗로부터 救出하는 길은 韓國이 基督教을 受容하는 일이며 近代의 教育을 導入하는 일이라 믿고 있다⁷⁾.

佐翁의 信仰心은 實踐 또는 行動主義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에게 있어서 信仰은 곧 行하는 일이다. 그것이 儒教와 基督教을 區別 짓는 重要한 差異點으로 強調된다. Vanderbilt 大學에서 神學을 修學하면서 佐翁은 神學的 論爭에는 전혀 興味를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그것을 ‘空虛’한 思索의 장난으로 보고 있으며 形式主義나 獨斷論(Dogmas)을 排擊한다. 그렇다고 道德主義에 억매이거나 散虔主義를 禮讚한 것도 아니다. 다음의 句節이 그것을 示唆해 준다.

Often we think it is our own moral strength that enables us to resist temptations and accomplish good, for getting the help of the Spirit of God.

I hate sanctimoniousness. One reason among others why I like Dr. Candler(Emory大 總長, 筆者註) is that he never whines. He reads, prays and preaches in everyday language and manner. No putting on air of any sort.”⁸⁾

佐翁이 美國 留學을 마치고 上海로 가는 途中 日本에 들렀을 때 福澤諭吉와 朴泳孝, 金玉均 등을 만나 宗教에 對한 對話를 나누는 場面이 詳細히 日記에 收錄되고 있는데 그 內容이 흥미롭다. 福澤와 朴, 金은 다 같이 宗教를 政治의 道具로 보고 있는 것이다. 福澤가 “宗教란 가난하고 無識한 者를 自己 處地에 滿足하도록 하기 위한 手段에 不過하다.”고 말하자 朴泳孝와 金玉均도 이에 同意하면서 “宗教는 政治의 道具(tool)以外的 아무 것도 아니다.”라고 呼應 한다.

이 對話는 確固한 信仰을 갖고 歸國 길에 오른 佐翁과 非信徒者 間의 論爭이기도 하기 때문에

7) 佐翁의 教育에 對한 信念은 留學 時節에나 歸國 前에 上海에서 쓴 日記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돌아 와서 學務部에서 일하기를 希望한 理由도 여기에 있다.

8) 日記 二, p. 276. (1892年 2月 10日字 日記)

佐翁 自身の 宗教觀 그리고 基督教에 對한 信念을 理解하는 데 좋은 資料가 된다. 그런 意味에서 그 場面을 그대로 옮겨 보기로 한다.

福澤: “내 집에 宣敎師가 살았는데 그 사람은 아무에게도 害를 주지 않았네. 거짓말도 않았지. 그런 나도 마찬가지야. 도둑질도 않았지. 나도 그러지 않았어. 信仰을 가진 그 사람이나 信仰을 갖지 않은 나나 아무 다른것이 없다면 宗教가 왜 必要하지?”

尹致昊: “그러나 先生과 같이 非凡한 人は 平凡한 基督教人과 比較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그 平凡한 敎人이 信仰을 갖기 前에 어떠한가를 생각해 보셔야 信仰心의 必要性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金玉均: “그 것을 어떻게 아나? 그 사람이 信仰心을 갖지 않았을 때 지금 보다 나빴다는 證據를 얻을 수 있겠나?”

尹: “宗教에 依해 改善된 惡人에 對한 具體的인 경우들을 들어 立證할 수 있지요.”

福澤: “내 생각에는 善·惡, 淨·不淨, 壽命과 幸福이란 다 主觀的인 世, 사람의 精神 狀態에 따라 다를 뿐이야. 結局 人間들이 善하고 좋은 일을 한다면, 그 것은 다 利己主義的인 動機 때문이네 우리는 이웃사람들이 착하기를 願하는데 그 理由는 저들이 착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生命과 財產을 파괴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기 때문이지. 어떤 敎理를 믿거나 否認한다고 해서 우리의 實際生活에 別差가 있는가?”

金: “千萬에, 그러나 萬一 輪廻라는 것이 있다면 그 것을 믿는 것은 知識이요 否定하면 無識이 되지.”

朴泳孝: “나는 四柱에 關心을 갖고 있는 데 내가 풀어 본 바에 依하면 二年半 後에 우리 5名이 韓國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 이상한 것은 우리가 고향을 떠나게 꿈 四柱에도 나와 있었어.”⁹⁾

福澤諭吉가 開化派指導者들과 가까웠고 저들의 後見者로써 背景에서 많은 영향을 미쳤음은 周知의 事實이지만 福澤는 徹底한 反儒敎論者였을 뿐 아니라 그는 日本人의인 ‘唯物論的 功利主義’의 提唱者이기도 했다. 특히 福澤는 日本 初代 敎人 가운데 西洋 諸國을 道德의 나라로 認定하고 저들을 欽慕하고 있다고 非難한 바 있으며 基督教에 對해 크게 反撥했던 사람이다¹⁰⁾. 그의 對話 속에서 그 점이 明白히 들어 나고 있다. 한편 佛敎信者로서의 金玉均과 四柱八字를 믿었던 朴泳孝의 얘기들은 佐翁의 세련된 西歐式의 論理와 너무나 對照的이기도 하다.

東京에서 佐翁이 가졌던 宗教에 對한 討論은 그가 上海에 到着한 후에도 韓國人 親舊들과 계속되고 있다. 이번에 그의 相對가 되는 것은 池氏와 姜氏인 데 이들이 다 上海에 滯留하던 佛徒一儒敎 信奉者들이다.

池: “당신은 宇宙가 無限하다고 보소?”

尹: “勿論, 空間과 時間은 無限하지.”

池: “당신은 精神의 無限性을 믿소?”

尹: “아니오. 精神은 有限하오. 五官에 依해 制限되고 있으니까.”

池: “그게 바로 유류人의 缺陷이오. 精神이 有限하다면 無限한 空間이나 時間을 알 길이 없지 않소? 精神에는 시작과 끝이 있다고 믿소?”

尹: “네. 나는 無限한 精神으로서의 造物主를 믿소. 그러나 나 自身の 精神은 有限하고 내 生命과 같이

9) 日記三, pp. 199—201.

10) 講談社, 日本の社會文化史 5, 近代化の展開, p. 289.

끝나오.”

池：“그건 너무 좁은 얘기인 데. 神이 萬物을 創造했다는 데 神은 누가 創造했지?”

尹：“하나님은 스스로 存在한다고 믿소. 또 우리의 精神에는 限界가 있는 것이며 그 것을 넘어서서 億測을 한다는 것은 絶望的이고 無用한 것에 不過하오. 당신이 생각하는 創造와 精神이란 무엇이오?”

池：“創造란 空間처럼 無限한 것이오. 宇宙는 누가 創造한 것도 아니오. 스스로 생긴 것이지 精神도 億萬年을 지나가면서 여러 型態의 存在로 나타나지.”

尹：“그건 바로 輪廻思想이군. 나는 그런 類의 存在를 원치않소. 한생애에 겪는 惡만으로도 充分하지. 내 靈魂이 現生 以前에 있었다는 것을 어떻게 立證하시오?”

池：“책과 經驗과 神靈(Spirits)을 통해서 알수 있지. 당신들은 神靈이나 妖鬼 幽靈은 믿지 않지요?”

尹：“勿論 믿지 않소. 그런 것이 있다면 왜 韓國, 日本, 中國에만 繁盛하고 歐美 사람들은 유명에 對해 모르지요?”

池：“神靈은 歡迎하지 않거나 믿지 않으려는 곳에는 가지않지.”

尹：(前略)“나 自身은 神靈이나 유명 따위는 믿을 수 없고 그 것이 韓國, 日本, 中國을 오늘과 같이 悲慘하고 弱하게 만든 信仰이라 생각하오. 그 것을 믿지않는 國家들인 美國이나 英國은 가장 啓蒙되고 開化된 나라가 되고있오. (中略) 나의 信仰을 明白히 밝히시오. 나는 神이 宇宙와 내 靈魂을 創造하였다고 믿소. (中略) 내가 基督敎를 믿는 것은 그 것의 가르침이 明瞭(Clear), 積極的(Positive)이고 單純(Simple)하며 高潔(Elevating)하기 때문이오.”¹¹⁾

東京과 上海에서 佐翁이 가졌던 宗教에 對한 對話속에서 들어난 佐翁의 基督敎觀도 興味롭지만 그가 가진 이 對話는 儒敎와 佛敎가 支配했던 韓國社會에 基督敎를 傳播하던 天主教나 改新敎의 宣敎師가 빈번히 가졌을 것으로 想像되는 宗教間의 邂逅(Encounter)의 한 斷面을 보여 주고 있는 것 같은 印象이다. 적어도 日記를 통해서 나타난 佐翁의 基督敎的 信仰(日記를 英文으로 썼기 때문에 表現에 制約이 있었으리라 생각되지만)의 骨字는 素朴하고 實踐 志向의 인 것이었다고 하겠다. 그의 對話에서 엿볼 수 있듯이 基督敎를 西歐 文明과 同一視하는 傾向이나 基督敎를 믿는 歐美가 韓國, 日本, 中國 보다 앞섰다는 事實에 力點을 두는 傾向이 그의 基督敎 受容 動機와 密接하게 結付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近代化 意識과 民族 意識

韓末의 開化派가 明治維新 以來로 西洋 文明을 積極 導入한 日本을 모델로 삼은 近代化를 目標 價値로 追求한 것은 周知의 事實이다. 開化 思想을 中心으로 한 近代化 運動은 甲申政變, 甲午更張으로 이어져 갔다고 하겠다. 어릴적 부터 開化派 人士들과 接觸을 가졌던 佐翁인 만큼 그의 開化 思想도 開化派에게서 영향 받은 그 것이었다.

前述한 바 있지만 韓末의 政治·社會 勢力은 여러 形態로 나타났지만 大分해서 開化 運動과 衛正斥邪 運動으로 나눌 수 있다. 구태여 系譜를 따진다면 佐翁의 立場은 斥邪衛正系는 아니며 近代 志向 내지 自主 進歩를 指向했던 開化 自強派에 속했다 한 것이다. 넓은 意味에서

11) 日記 三, p. 230-31.

兩派가 다 같이 民族運動의 初步의 發現 形態였다고 볼 수 있지만 “近代 志向”과 “民族 保全”이라는 두 指標를 基準으로 性格을 파악할 때 一般的으로 말해서 韓末의 開化 思想은 아직 外勢侵略이 急迫하지 않은 狀態 속에서 自主的 近代化 意識은 강했으나 對外 認識에 있어서 反 外勢意識이 약했던 것으로 생각된다¹²⁾. 先進 文明을 받아 들여 近代的 民族國家를 建設하는데 있어서 “排他를 통한 民族保全”이 아니라 “受容을 통한 民族 保全”과 近代 志向을 追求하였으나 外勢 侵略에 對한 明確한 認識이 缺如되어 있었던 것이다.

佐翁의 近代化 意識과 民族 意識은 美國 留學 時節과 歸國後 官職에 올라 實際로 政治의 一線에서 일하는 過程에서 成熟되어 갔으나 留學 時節과 그 直後에 쓴 日記를 中心으로 본다면 近代化와 民族의 將來에 對한 다음과 같은 몇가지 思考 樣式을 찾아 볼 수 있다.

Vanderbilt 在學時였던 1890년에 쓴 日記에서 佐翁은 當時의 韓國에게 주어진 代案(Alternatives)으로서 다음 다섯가지를 論하고 있다¹³⁾. 첫 째로 平和로운 改革이다. 紀綱잡힌 軍隊, 政府의 再建, 쓸모없는 末端 官吏들의 肅請, 言論과 出版의 自由, 그리고 教育이 改革에 必要한 段階(steps)로 指擔되고 있다. 그러나 王妃(閔妃를 말함. 筆者註)와 그를 둘러싼 側近 勢力의 利己主義나 王 周邊에 좋은 重臣이 없는 狀況에서 그러한 改革을 期待할 수 없다고 結論짓고 있다. 둘째로 國內 革命이다. 賢明하고 意慾의인 勢力이 現存하는 모든 不正 腐敗를 一掃하고 확고하고 開明된 바탕 위에 새로운 體制의 政府를 樹立한다. 그러나 外勢와 저들의 干涉때문에 그와 같은 革命이 일어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다.

위의 두가지 길이 最善策이지만 그 實現性이 희박한 만큼 最惡이지만 蓋然性이 많은 代案 세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즉 現 狀態의 繼續으로써 그것은 現 政府에 依한 彈壓, 殘忍性, 暴政의 계속과 國民 사이에 無知, 迷信, 貧困과 悲慘한 生活 狀態의 계속을 뜻하며 國家的 次元에서 羞恥, 不名譽(ignominy) 그리고 오랜 죽엄(lingering death)이 기다리고 있는 狀態를 意味한다. 네째 代案은 淸國에 依해 支配되는 狀態로서 韓國이 그러한 運命에 놓여질 가능성이 가장 높다. 그렇게 된다면 現 狀態보다도 더 惡화된 狀態로 빠지게 될 수 밖에 없다. 다섯 째는 英國이나 露西亞의 支配下에 놓일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세번째나 네번째의 代案보다 훨씬 좋은 狀態일 것이다. 英國이나 露西亞의 支配下에서 百姓들의 受難은 除去되고 百姓으로서 利得을 누리게 될 수 있을 것이다. 露西亞보다는 英國의 支配가 더 바람직하다. 첫째와 둘째 代案이 實現 不可能하고 세째와 네째 代案이 견디기 어려운 條件인 만큼 다섯째 代案을 渴求할 수 밖에 없다고 佐翁은 쓰고 있다.

일핏 보면 外勢의 支配를 환영하는 것 같은 佐翁의 主張은 抵抗感을 이르게 하는 內容이지만 平和로운 改革이나 國內 革新을 통한 近代化의 可能性이 희박하다는 認識에서 온 挫折 意識

12) 車基監, “韓國 民族主義와 基督教”, 崇田大學校 論文集 第6輯, p. 976, p. 536.

13) 日記 三, p. 54. (1893年 4月 8日字 日記)

이 “밖으로 부터의 衝擊”에 依해서라도 近代化를 實現해야 한다는 極端的 思考로 나타난 것인 지도 모른다. 이러한 解釋을 뒷받침해 주는 것으로 佐翁이 Emory 大 在學時에 쓴 또 하나의 日記文을 들 수 있다. 1893年 4月 8日 字 日記에서 佐翁은 短想을 적으면서 “韓國의 將來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나는 適者生存의 原理를 믿는다.” 韓國民族에게 公正한 機會—그것을 가져보지 못했지만—을 주어 보자. 그리고 生存할 수 없음이 立證되면 될 데로 버려 두자. 그 때에 나의 義務는 韓國民族이 生存하는 데 適合한 國民이 되도록 하는 데 一部分이나마 寄與하는 일이며 그 結果는 神의 손에 맡길 수 밖에 없다. 基督教만이 韓國人을 救濟해 주는 길이다.”라고 記述하고 있다.

같은 日記文에서 佐翁은 보다 밝은 韓國의 將來를 그리는 명상에 잠기게 된다. 마치 어떤 靈感을 받아 幻想을 그리듯이 佐翁은 “近代化”된 韓國의 밝은 未來를 다음과 같이 描寫하고 있는 것이다.

“時間이 지나면 韓國도 다른 나라와 같이 文明化(civilized)될 것이다. 數百萬의 韓國人이 自由를 享樂하게 될 것이며, 오늘 世代가 겪고 있는 奴隸와 같은 생활을 懷古하면서 웃을 날이 올 것이다. 郡邑마다 學校와 大學이 세워지고 아름다운 韓半島의 坊坊 谷谷에 王宮과 같은 家屋들과 넓은 道路 그리고 紀念塔들이 세워지리라. 그렇다. 그런 때가 올 것이다. 萬一 韓國人이 그것을 實現하지 못하면 다른 누가 그렇게 할 것이다. 어느 種族이던 改善을 하거나 그렇지 못할 경우 死滅하는 길이 있을 뿐이다.”¹⁴⁾

佐翁이 그린 ‘近代化된 韓國像’은 開化派가 생각했던 近代化 國家像의 具體的인 表現이라 볼 수 있다. 佐翁의 비혼은 그가 歸國해서 官職에 있다가 獨立協會 會長으로 活動한 후 同協會의 強制 解體後 元山 監理로 赴任했을 때 쓴 日記에서 보다 깊이 있는 內容으로 再次 描寫되고 있으며 여기서도 前과 비슷한 未來像이 提示되고 있다.

“두개의 그림을 想像해 본다. 하나는 過去와 다른 無는 朝鮮이다. 兩班 體制의 罪惡, 儒敎의 停滯的 敎理, 오두막집—김치의 生活 水準과 家父長制의 착취적인 政府, 共同 墓地와 같은 平和와 安定이 支配하는 社會의 연속이다. 때때로 四五百年마다 한 王朝의 腐敗, 罪惡이 極에 達했을 때 새 王朝가 일어나 必要的 改革을 施行하나 그 王朝도 역시 腐敗, 不正, 彈壓에 從事하다가 崩壞되는 史的인 반복이다. (中略) 千年後에도 오늘의 韓國人처럼 더럽고 無知하고 낡은 집에서 살면서 오늘보다 나은 交通手段, 敎育施設, 醫療制度도 없이 살아갈 것이다. 永遠한 停滯와 無爲徒食의 生活! 이 얼마나 우울한 그림인가!

그러나 싫던 좋은 外的인 影響과 壓力에 依해서 朝鮮도 變할 수 밖에 없다. 앞으로 一世紀에 걸쳐서 韓國人 스스로에 依하던 外國人의 支配下에서 이던, 鐵道, 通信, 交通等의 變化가 朝鮮에 變革을 가져와 西紀 2,000年의 韓國人은 전혀 새로운 存在가 되어 있을 것이다. 2,100年에 가면 이 초라한 초가집들은 조촐한 벽돌집으로 바뀌어 있을 것이며, 벌거숭이 언덕과 산들이 아름다운 꽃과 樹木으로 울창하게 덮혀져 있으리라. 오늘 宮中을 드나드는 무당, 四柱쟁이, 占쟁이의 무리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14) 上揭書, p. 56.

數百萬의 百姓이 피땀을 흘리는 일은 없으리라. 그 代身, 國民의 同意아래 徵收된 稅金으로 道路를 建設하고 學校를 짓고 國防을 有效하게 運營하게 될 것이다. 三百年後에 다시 이 땅에 태어나 朝鮮이 겪은 變質된 모습을 볼 수 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구나!”¹⁵⁾

佐翁의 反封建的 立場은 日記 全體를 통해 強烈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日記中 여러 곳에서 李朝朝鮮의 ‘封建的’인 政治 體制를 辛辣하게 批難하고 있다. 上海에 있을 때 쓴 한 日記 속에서 佐翁은 “朝鮮 政府는 過去 500年間 寡頭 政治 體制였다.”고 記述하고 “그 全歷史가 용서할 수 없는 憎惡, 부끄러운 陰謀, 大量的인 殺肉 行爲의 記錄이다.”라고 酷評한다¹⁶⁾. 그는 계속해서 “이 수치스러운 體制는 才操 있는 사람이나 德望있는 사람에게 致命傷을 주었다. 德 있는 사람에게는 위협을 주었고 才操 있는 사람에게도 不利한 體制”라고 批判하고 있는 것이다.

그의 反封建的 定向과 並行해서 淸國에 對한 反感 역시 激烈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의 反淸 態度는 美國 留學時의 日記 속에서도 鮮明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歸國後에 더욱 激烈해진 것으로 보인다. 淸國의 干涉을 直接 體驗했기 때문일 것이다. 1894年 淸日戰爭이 일어난 直後 上海에서 戰勢를 觀望하면서 佐翁은 淸國과 日本 兩國의 威脅下에 놓인 朝鮮을 걱정하고 있다. 日記에서 佐翁은 “힘은 正義라는 事實을 믿는 나로서 朝鮮內에서 強國이 強壓의 行爲를 取하는 데 對해서 조금도 놀람지 않다. 나는 中國(淸國)의 極惡 無道한 行爲에 비추어 다른 어느 나라에 依해 朝鮮이 支配 받아도 지금보다 낫다고 생각 한다.”라고 陳述하고 있다¹⁷⁾.

그의 激烈한 反淸 感情은 推測컨 데 甲申政變 當時의 淸의 介入과도 關聯된 것이 아닌가 생각되며 淸의 保護를 받고 있던 保守 勢力(閔氏 一派)에 對한 反感과도 聯關이 있을 법하다. 위에 引用한 日記文에서 佐翁은 淸의 ‘極惡 無道’한 行爲의 責任이 “王妃와 그 戚臣에게 있다. 惡한 女人의 罪行이 이렇게 까지 作用하다니!”하고 閔妃를 非難하고 있다.

反淸 感情 때문인지 佐翁의 淸日戰爭觀은 歪曲된 면이 있다. 同時에 日本을 보는 데 있어서 安易하고 純眞한 데가 있다. 淸日戰爭을 論하면서 佐翁은 다음과 같이 日記를 記錄한다.

“最近의 戰爭은 再生되는 西歐文明과 轉落되고 있는 東方 野蠻主義 사이의 衝突 以上の 뜻을 지닌다. 日本의 勝利는 韓國의 救援과 中國의 改革을 意味한다. 全 東亞의 利益을 위하여 日本이 成功하기를 빈다.”¹⁸⁾

그러면서 同年 7月24日에 쓴 日記文에서 朝鮮人들이 淸의 사주를 받아 日軍을 攻擊했다는 消息을 新聞에서 보고 “萬一 그 것이 事實이라면 朝鮮人들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짓을 한 것이다. 오히려 事態를 광망해서 그 機會를 自己들의 立場에 有利하게 利用했어야 했다. 日本이 勝利할 경우 저들의 報復을 어찌할 셈인가?”하고 現實主義的인 觀察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15) 日記 五, p. 265—66. (1900年 12月 28日字 日記)

16) 日記 三, p. 226. (1893年 12月 8日日字 日記)

17) 上揭書, p. 349. (1894年 7月 31日字 日記)

18) 上揭書, p. 375. (1894年 9月 27日字 日記)

“日本은 朝鮮의 獨立을 위해서 이번 戰爭을 敢行했다고 말 한다. 이것은 믿기에 너무 좋은 말이다. (中略) 日本이 勝利하면 日本은 朝鮮에 對한 保護權을 確保하고 臺灣을 얻게 될 것이다.”¹⁹⁾라고 상당히 銳利한 觀察力을 보여 주고 있다. 이어서 佐翁은 다음과 같이 말 한다.

“늦은 感이 있으나 이 時點에서 朝鮮은 淸國의 支配에서 벗어 나서 改革을 시도 할 가능성을 갖게 되었다. 萬一 賢明하고 愛國의인 人士가 韓半島 事態의 收拾에 나선다면 그것은 가능한 일이다. (中略) 完全한 中立主義만이 朝鮮의 安全策이다. 그러나 王의 나약성, 王妃의 利己의 態度, 그리고 側臣들의 奸악하고 利己主義的 性向으로 보아 朝鮮王國은 周邊 強國의 밥이 되고 말 것 같다.”²⁰⁾

外勢 侵略의 緊迫性을 切感하면서도 朝鮮 政府의 無能과 絶望 狀態를 멀리서 한탄하던 佐翁에게 亡命生活을 끝내고 歸國할 수 있는 好機가 온 것은 淸日戰爭이 끝난 1895年初이다. 1894年 12월에 佐翁은 本國의 家親으로부터 歸國하라는 私信을 받았고 이어서 當時 駐日 公使館에 있던 從弟(尹致旣)로부터 甲午 改革의 主導 勢力이 佐翁의 歸國을 바라고 있다는 書信에 接하게 되었다. 中西學院의 教職을 辭任한 후 佐翁은 1895年 2月 14日 10年만에 故國의 땅을 밟았다. 歸國前에 同僚들이 佐翁의 將次 計劃에 對해 묻자 그는 두가지를 얘기하고 있다. 하나는 韓國에 있는 宣教會와 손을 잡아 國民 啓蒙을 위한 文書 活動을 하고 싶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政府에 職責을 갖을 경우 選擇이 許諾된다면 學務局서 일하고 싶으며 그럴 경우 日本에 가서 教育制度를 調査 觀察해서 韓國에 導入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歸國後 當時의 權力 政治의 過流 속에 휩쓸리게 된 佐翁은 두가지 중 어느 하나도 이루지 못 한채 波瀾과 曲折에 가득찬 公的生活에 휘말리게 된 것이다.

IV. 韓末 政治 過流 속의 佐翁

佐翁이 歸國한 후(1895)부터 1902年(國史 編纂委 刊行의 日記가 끝나는 해)까지의 7年餘의 期間은 韓國 近代史에 있어서 가장 危急(critical)하고도 決定的인 時期이다. 그 期間의 佐翁의 活動은 ①學務 外務協辦 職에 있었던 期間(189. 4~1896. 2); ②露西亞 皇帝 戴冠式에 갔다가 滯歐 滯中後에 歸國하기 까지의 外遊 期間(1896. 3~1897. 1); ③獨立協會등 民權 開化 運動에 投身하던 期間(1897. 7—1898. 12); ④地方 官吏 生活(1899~1902) 期間으로 이어진다. 1930年 1月 11日~15日 東亞日報에 連載했던 『風雨 二十年—韓末政容의 回顧談』중 『獨立協會長 尹致旣』內의 記事에서 보면 佐翁은 面接하던 記者에게 過去를 回想하면서 地方官으로 있었던 時節이 가장 즐거웠던 때였다고 述懷하고 있다. 그것은 “地方官은 司法 行政 警察 같은 모든 權利를 혼자 맡았음으로 自己의 現想만 높으면 自己 뜻 대로 모든 일을 해 나갈 수가 있기 때문”이라고

19) 上揭書, p. 344 (1894年 7月 24日 日記)

20) 上揭書, p. 345.

말하고 있다.²¹⁾ 아닌게 아니라 地方官으로써의 佐翁은 홀몸했음이 日記文을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다. 佐翁은 元山, 鎭南浦, 天安으로 轉轉하면서도 가는 곳마다 貧官 汚吏들을 쫓아내고 民衆을 따뜻히 보살피는 名官으로 尊敬을 받았으며, 美國 留學을 통해서나 信仰 生活에서 얻은 所信을 實踐에 옮기려 努力 하였다. 元山 監理로 있을 때 佐翁은 자전거를 타고 直接 돌아다니면서 民衆과 直接 어울려서 저들의 處地를 改善시키는 데 힘썼고 元山에 學校를 세웠으며 民衆會議를 組織케 하여 民意를 反映토록 하기도 했다.

이와 對照의으로 中央 政府의 官職에 있을 동안의 佐翁은 한편으로는 朝鮮 政府內의 高位層間의 끊임없는 派閥 싸움과 權力 爭鬪 및 不正 腐敗와 다른 한편으로는 外勢들의 不斷한 陰謀 및 壓力 사이에서 시달리면서 자주 無力感과 虛脫感에 빠지기 일쑤였다. 어릴적 부터의 改革主義的 定向과 그후의 美國 留學 期間에 形成된 西歐的인 理想主義나 基督教의 價値 定向을 지녔던 佐翁이 自己의 能力 才能을 發揮하기에는 韓末 政治는 이미 너무 病들어 있었다. 佐翁의 性格 과도 關係가 있겠지만 良順하고 清廉했던 佐翁은 흔탁한 權力政治 속에서 利用을 當하기 쉬웠고 그 속에서 다른 政客처럼 權勢와 富를 누릴 줄도 몰랐다. 다만 腐敗하고 寒心한 政客들의 ‘감투놀이’를 皮탄하면서 國家의 運命을 슬퍼할 뿐이었다. 當時로서는 唯一 無二하게 英語에 能通했던 탓으로 外國 公館들과 韓國政府 사이에서 橋梁的인 役割을 맡았던 佐翁이었기에, 그가 日記에 收錄한 事件들의 事實的 內容은 아주 正確性을 기한 것이며 그런 意味에서 佐翁은 韓末 政治를 觀察하고 參與 했던 一種의 參與觀察者(participant observer)이었다 할 것이다.

그러한 佐翁의 눈에 비친 韓末 政治像은 한마디로 表現해서 ‘墮落된 寡頭政治’의 그것이며 그것을 民衆과 乖離시켜 操作하면서 侵略의 機會를 노리는 外勢와 그 앞잡이들의 亂舞場이기도 하다. 그래서 佐翁의 日記文에는 韓末의 歷史의 人物들에 對한 才氣 넘친 評과 아울러 韓國的인 政治 風土(요사이의 政治學的 表現으로는 政治文化라 하겠지만)에 對한 銳利한 觀察 外國 公館員과 韓國政府의 外國人 顧問들과의 對話 內容이 담겨져 있다.

佐翁 日記를 통해서 韓末 政治의 正體를 把握해 본다면 短的으로 말해서 韓末의 政治 過程은 國內와 國外的 要因이 重疊된 속에서 極少數에 依해 國運이 左右되었던 한 事例로 볼 수 있다. 그런 意味에서도 近來에 關心을 이르고 있는 連繫 理論(Linkage theory)을 適用해서 그 事例를 分析하는 試圖도 흥미로운 것이 될 만 하다. 여기서는 單純히 韓末 政治 過程의 性格을 究明하면서 그 속에서의 佐翁의 位置와 役割을 吟味해 보기로 한다.

佐翁 日記 속에서 浮上되는 韓末 政治像은 高宗 閔妃와 大院君 사이의 對立, 外勢(日本과 露西亞)와 結託된 朝鮮政府 高位層과 內閣內의 派爭, 그리고 自國의 利益을 代表해서 韓國政府에 直接 間接으로 介入하는 外國 使節들과 外國人 顧問들 間의 對立과 競爭으로 빚어진 方向 感覺을 상실한 混亂相이다. 그것은 數없이 많은 陰謀와 計略으로 點綴된 것이기도 하다. 事實上

21) 探求堂, 『尹致昊 日記』 下卷, 附錄 參照.

이 期間에 重要한 事件이 꼬리를 물고 일어났다. 특히 佐翁이 外務協辦 在職 時에 겪은 重要 事件은 乙未 閔妃 殺害 事件(1895. 10. 8)과 高宗의 俄館播遷(1896. 2. 11~1897. 2. 20) 그리고 閔妃 殺害後에 各處에서 일어난 義兵 運動이다. 乙未 事件은 漸次로 強化되던 親露 勢力에 의해 위축되던 日本이 大院君을 앞 세워 日本 浪人들로 하여금 宮內에 侵入하여 排日 勢力의 中樞의 地位에 있던 閔妃를 除去케 한 露骨의인 侵略行爲의 하나였으나 日本이 노린바 目的은 達成하지 못하고 오히려 朝鮮人의 反日感情단을 고조시켰고 義兵 運動의 擴大와 俄館播遷이라는 새로운 事態를 유발한 것이다. 閔妃가 殺害 當한 날의 光景을 듣는 데로 상세히 記錄한 佐翁은 다음날인 1895年 10月 9日字의 日記에서 當時 外務大臣 金允植을 만나 內閣에서 閔妃를 格下(degrade)시키려 한다는 소문의 眞實 如否를 따지면서 佐翁이 나눈 對話 內容을 收錄하고 있다.

尹: “閔妃의 참살에 對해 外國人들이 대단히 분개하고 있습니다.”

金允植: “外國人들은 不當하고 公平치 못해, 그녀가 술을 주고 자주 악수했다 해서 그런 모양인데 外國人 中에도 公正한 생각을 가진 사람은 그녀가 아주 惡했다는데 對해서는 是認하고 있네.”

尹: “그것은 事實입니다. 제가 얘기해 본 外國人들도 閔妃가 亡國의인 處事를 해왔다는데는 意見을 一致합니다. 가장 천한 罪人도 것처럼 죽기를 부끄러워 할 수 있는 가련한 죽음을 當한 데 對해 同情과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金玉均은 逆賊이었지만 政府가 法的 筋次를 따라 懲罰을 했다면 金玉均의 죽임에 對해 아무도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를 暗殺했기 때문에 온 世界가 韓國政府의 殘忍性과 비겁한 점 만을 얘기하지 金의 罪行은 記憶하지 않습니다. 閔妃를 金처럼 惡했다고 생각치는 않겠지요. 더구나 王妃였습니다. 外國人들이 閔妃의 殺害에 對해 분개하는 이유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金: “하고 싶은 데로 同情하라고 하지. 外國人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美國人들은 말 뿐이지 말, 말, 그리고 말 뿐이야. 露西人들은 좀 不平하겠지만 日本을 當할 수 없어. 우리는 獨立國이고 우리 政治에 外國人이 干涉할 權利가 없네.”

尹: “우리가 정말 自主的입니까? 外國人들의 干涉에서 完全히 解放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自主的이기 때문에 日本人을 불러 드려 宮內에 侵入시켜 閔妃를 殺害한 것입니까? 日本人들이 한 干涉, 介入을 다른 外勢도 할 수 있습니다. (中略)日本은 여기 와 있는 外國人들의 反感을 샀기 때문에 韓國에서도 아무일 못하고 失敗했습니다. 外國人들의 善意없이 일을 해낼 수 있겠습니까?”²²⁾

乙未 事件 直後 金弘集, 俞吉濬등 親日 勢力이 再登場 했 을 때 佐翁은 10月 27日字 日記文에서 “朝鮮 政府는 세계의 바퀴(wheels)위에 서 있는 물건이다. 內閣이 그 하나이고, 親日 勢力이 또 하나이며 세계 바뀌는 外國 勢力이다...(中略) 첫째와 둘째는 調和가 잘 되어 있지만 세계 바뀌는 故障狀態이다. 外國 使節들은 抗議하는 일은 그만 두고 賢明하던 못 하던 新內閣을 방치하던지 아니면 果敢하게 韓國 政府를 侵害하는 세력을 부시는 措置를 해주었으면 한다. 저들의 애매하고 微溫的인 干涉이 오히려 사람들을 當惑케 하고 있고 그래서 日本人의 嘲笑거리가 되고 있다.”²³⁾고 記錄하고 있다.

22) 日記, pp. 71—72. (1895年 10月 9日字 日記)

23) 上摺書, p. 79. (1895年 10月 24日字 日記)

乙未事變後 1個月餘가 지난 11月 28日, 勤王 勢力이 主導한 不發 쿠데타가 發生했을 때 佐翁의 家親 尹應烈이 이에 加擔했으며 佐翁도 그 計劃을 알고 있었던 理由로 難處한 立場에 빠지게 된다. 尹應烈은 上海로 避身했고 佐翁도 辭表를 提出한 후 언더우드宅에 避身하다가 1896年 1月 24日에 內閣으로부터 安全을 保障한다는 公式 書翰을 받고 歸家했다. 그의 짧았던 外務協辦職이 끝난 것이다. 집에 돌아 오면서 佐翁은 다음과 같이 그의 所感을 收錄하고 있다.

“昨年 봄(歸國 直後 筆者 註) 나와 父親은 白川丸(汽船) 甲板 위에 서 있었다. 朝鮮의 悲慘한 現實을 한탄하던 나를 보고 그 때 父親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에 對해 걱정하지 말아라. 政治的 朝鮮의 終末은 닳아 왔다. 日本은 뱀과 같이 불쌍한 朝鮮의 몸을 쥔 채 죽이고 있다. 朝鮮 國民이나 政府에 對해 아무 希望도 걸 수 없다. 너는 빨리 벼슬 길에 올라 出世해서 많은 보수만 받으면 된다.’고 했다. 그의 俗된 助言을 들었을 때 나는 啞然 失色했다. 그런데 나의 官職 生活中 나는 바로 그의 助言대로 살아 왔을 뿐이다. 내가 받은 134불의 보수에 相當한 일이라곤 하나도 한 것이 없다. 집으로 걸어 오면서 나의 同族들의 悲慘한 現實을 생각할 때 이제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俸給만을 타먹는 官職에서 물러나게 된데서 나의 良心은 훨씬 가벼워진 氣分이다.”²⁴⁾

周圍에서 監視를 받아 가면서 蟹居하던 佐翁에게 俄館播遷의 消息이 들려 오고 金弘集과 趙秉夏가 群衆에게 殺害되었다는 소식을 接하게 된다. 李完用의 부름을 받고 佐翁은 露西亞 公館에 가서 高宗을 謁見하였다. 그리고 內閣의 強要에 못이겨 또 다시 學務協辦의 公職을 맡게 된다. 佐翁은 高宗과 內閣에게 高宗이 俄館에 계속 머무는 것의 不當性을 指摘하면서 草家라도 좋으니 朝鮮집으로 옮길 것을 主張하였다. 그는 露西亞人 顧問 웨버에게도 俄館播遷의 主謀者인 李範晉이 그 후 權力을 濫用하고 있다는 점을 想起시키고 그를 牽制해 주기를 간청하고 있다. 그의 學務協辦 職도 2個月 滿에 끝나고 佐翁은 閱泳煥을 따라 露皇帝 戴冠式에 參席하기 위해 歸國한지 1年 3個月 만에 外遊의 길에 오르게 되었다. 親日 勢력과 親露·親美 勢력의 權力 다툼의 틈바구니에서 良心껏 高宗에게 忠誠하면서 國運을 바로 잡는 데 盡力해 보려던 佐翁의 짧은 公職生活은 時時 刻刻히 괴여 오는 外勢의 壓迫과 그에 便乘해서 또는 그것을 利用해서 제 나름대로 國家危機를 克服하겠다는 名分아래 熾烈한 싸움을 벌였던 政治 勢力들의 角逐戰 속에 휘말린 채 無爲로 끝나고 만 것이다.

1897年 1월에 外遊 生活에서 돌아온 佐翁은 官職으로 復歸하지 않고 徐載弼과 함께 獨立協會를 中心으로 民權 運動에 從事하게 된다. 政府內에서 외로운 處地에 있었던 佐翁은 政府 밖의 改革 開化 勢력과 손잡아 政府의 改革을 促進해야 겠다고 確信한 것이다. 1897年末 부터 1898年末 까지의 1年 동안은 佐翁에게 있어서 活氣에 넘치는 해였다고 하겠다. 日記에서도 그러한 端面을 엿 볼 수 가 있다. 佐翁은 한 日記文에서 “朝鮮 改革의 唯一한 希望은 오늘 日本에서 留學中인 青年 勢力을 中心으로 1894年의 甲午改革과 같은 刷新을 斷行하는 일이다. 政府의 낡은 官吏들은 하나 같이 바보나 不良輩가 아니면 兩者를 겸한 者들이다.”라고 酷評하

24) 上揭書, p. 130. (1896年 1月 24日 日記)

면서 獨立協會를 통해서 第2의 甲午更張을 實現해 보자는 意欲을 피력하고 있다. 그리면서 佐翁과 徐載弼의 立場에는 相當한 差가 나타나고 있다. 徐의 急進主義의 아프로치에 對해 佐翁은 漸進의 아프로치를 固守하려 했고 對政府 關係에 있어서도 穩健의인 立場을 取했으며 高宗에 對해서도 忠誠을 아끼지 않았다. 그런 점에서 佐翁은 徹底한 勤王派(Royalist)였다고 하겠다. 徐載弼은 처음부터 王制를 廢制하면서라도 西歐 民主制度를 導入해야 한다는 急進의 思考의 所有者였던 데 비해 佐翁은 王의 保護와 支援下에서 漸進의인 改革을 推進하며 王과 그 側臣 勢力과의 磨擦을 줄이면서 官僚 體制를 刷新해 가려는 實用主義의 思考의 所有者였다. 그러나 獨立協會內의 過激 分子들에게 佐翁의 立場은 容納될 수 없었던 것이며 結局 獨立協會는 強制解體라는 悲劇的인 終末을 겪게 된 것이다. 그리고 獨立協會의 解體와 더불어 多事 多難했던 佐翁 歸國 後의 政治 活動도 終止符를 찍게 되었다.

V. 結 言

이 글에서는 佐翁 生涯의 前半期(1868—1902)라고 할 수 있는 期間에 限定해서 佐翁 日記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데로 基督教을 受容하게 된 動機, 近代化觀 및 民族 意識을 整理해 보았다. 佐翁은 韓國 사람으로서 처음 外國 留學을 하고 유럽 各國을 旅行한 사람이요, 初代 敎人이었으며 外國語에 能通했던 知識人이었다. 그는 政府 高位 官吏를 지냈고 獨立協會를 이끈 改革者(Reformer)였으며 日帝下에서는 抵抗 指導者였고 社會事業家이기도 했다. 解放後 佐翁은 親日附逆者로서 「反民特委」의 糾彈을 받은바 있다. 여러가지 面에서 佐翁이 걸은 길은 韓國 國民이 걸었던 길이기도 하다.

開港(1876年)부터 日帝의 強占 時까지의 韓國 歷史에 있어서 當時의 指導層 內部에는 保守 勢力과 開化 勢力 間에 對立은 熾烈했으나 外勢에 依한 支配에 對해서는 그리 敏感하지 못했던 것 같다. 開化 勢力 內에서도 外勢 侵略을 意識한 것은 國運이 기울어지기 시작한 後의 일이었다. 少數의 指導層만이 民族의 危機를 意識하고 外勢에 依한 被侵 可能性을 내다 보았던 것이며 그러한 '비존'을 가졌던 少數 가운데 한 사람이 佐翁이었다고 하겠다. 佐翁의 비존은 美國에서 留學 生活를 통해서나 그가 歸國해서 外務 協辦으로 있으면서 外國使節들과의 接觸 속에서 몸소 體驗하는 過程에서 더욱 確固해졌으며 닥쳐 오는 危機와 危險을 指導層과 國民에게 알려 주고 저들을 깊은 잠에서 깨우고저 最善을 다하였다.

佐翁이 가졌던 비존 속에서 가장 重要한 位置를 차지한 것은 強力하고 活潑한 敎會를 中心으로 韓國을 救援해야 한다는 信念이다. 그러한 敎會만 있다면 未開의이고 後進의인 韓國 社會를 腐敗와 不正으로부터 救出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韓國에 宣敎事業을 展開해야 하며 많은 宣敎師를 데려 와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의 비존 속에서 또하나의 重要한 要素는 近代式 敎育에 對한 確信이다. 韓國을 近代化시키는 길은 全國的으로 近代式 敎育을 實施하는 일이다. 書堂을 없애고 坊坊 谷谷에 學校를 세워야 한다고 믿었다. 美國 留學 後 歸國하기 前에 美國人 恩師들 앞에서 佐翁은 “돌아가서 敎育事業에 投身하겠다.”고 陳述한 바 있다.

세계 要素로 改革政治이다. 특히 政府 官僚 體制의 刷新을 強調하였다. 日記 全體를 通해서 佐翁은 官僚의 無能, 不正 腐敗 蒙昧性을 신랄하게 批判하고 있다. 韓國의 後進性의 原因이 바로 王側近의 官吏들의 後進性에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그의 所信이 獨立協會를 中心으로 한 그의 民權 運動의 原動力이었다고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佐翁은 當時 指導層 가운데서 누구보다도 外國 事情에 밝았을 뿐 아니라 外勢의 侵略性을 意識했던 사람이었다. 그러면서 佐翁은 基本的으로 美國과 英國에게 期待를 걸었던 것 같다. 그러나 當時의 美國은 아시아에 깊이 介入하기를 주저했던 勢力이었으며 露西亞와 日本에 對해 아무 牽制力도 行使할 수 없는 處地에 놓여 있었다. 自國의 國利 充足에만 執着하였던 때문이다. 佐翁은 機會있을 때 마다 高宗에게 國際 政勢를 말하고 이에 對處하기를 直言하였으나 別로 反應을 얻지 못했다. 日記에서도 高宗의 無能和 無識을 한탄하고 있다.

남달리 뛰어난 비존과 洞察力을 지녔던 佐翁이었지만 佐翁은 思想家로서의 이미지보다는 實踐家로서의 풍모가 길다. 그의 基督教觀도 實踐的 定向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고 그의 民族主義的 意識도 體驗的인 것이지 意識的인 것은 아니었으며 그의 近代化 意識도 西歐社會를 直接 보고 느낀데서 形成되고 具體化된 것이었다. 그의 實踐的 定向 밑바닥에는 어릴 적 부터 배운 儒敎的 敎訓과 아울러 美國 留學을 通해서 體得했다고 볼 수 있는 淸敎徒的 倫理 意識이 깔려 있다. 佐翁의 日記를 읽으면서 누구나가 剛直하고 淸廉하며 情에 넘쳐흐르는 良心的인 人間 佐翁의 모습을 接할 수가 있다.

西歐文明을 깊이 理解했고 韓國의 基督教 속에서 民族 救援의 길을 찾으려 했던 佐翁이 걸었던 길은 또한 韓國의 基督教가 걸어온 길이기도 하다. 佐翁에게 있어서 基督教 信仰과 民族主義 意識 그리고 近代化의 追究가 一體化를 이루었던 것 처럼 오늘의 韓國의 基督教도 참다운 近代化의 實現과 激動하는 世界 속에서 民族의 保全과 分斷된 民族의 統一을 追求해야 하는 歷史的 使命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韓國敎會史에 있어서 佐翁이 차지하고 있는 意義를 그런 側面에서 再檢討해 보는 것도 意味있는 課題가 아닐까 한다.